



한일장신대 양공부, 전국대회서 금 6개 획득

한일장신대학교 양공부(감독 안중민)가 제55회 남녀양궁 종별선수권대회에 출전 명실상부한 대학 최강 팀의 명성을 이어갔다.

최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이 대학 양공부는 금 6, 은 7, 동 8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 컴파운드에 출전한 박소홍(사회복지학과 1년)선수는 60m, 50m, 30m에서 1위, 70m에서 2위를 차지해 개인종합 1위에 올랐다. 또한 윤수정 선수(운동처방제학과 2년)는 50m 2위, 70m, 60m, 30m에서 3위를 차지하며 개인종합 3위에 올랐다.

남자부에서는 이창민(운동처방제학과 3년) 선수가 50m에서 1위, 90m, 70m, 30m 2위를 차지해 개인종합 2위에 올랐고, 권진우(운동처방제학과 4년)선수는 50m에서 2위, 90m, 70m 30m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해 개인종합 3위에 올랐다. /정은성 기자



팔복동 의류업체 루, 마스크 90만장 후원

아동 실내복 등을 생산하는 전문 의류업체인 루(ROO)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후원했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팔복동 소재 의류업체인 루(ROO)가 덴탈마스크 50만장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루(ROO)가 지난 3월 40만 장의 덴탈마스크를 후원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올해 기준 마스크는 총 90만장에 달한다. 시는 후원받은 마스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루(ROO)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지역 업체에서 구입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역발전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 되길”

개벽종합건설 이영섭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탁

(유)개벽종합건설 이영섭 대표가 대학 경쟁력 향상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최고위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 대표는 지난 2016년에도 최고위과정 초빙교수를 역임하며 이 대학 상대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전북대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간담 초기였던 이 대표 부친이 유혈 투쟁 전 학생처장에게 수술을 받아 완쾌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기회가 닿으면 전북대병원에도 발전기금을 기부할 생각이라 밝혔다.

이 대표가 인재양성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



전달했다.

이영섭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쳐 나가는 데 힘든 학생들에게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전북대가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는 것은 어릴 때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엔 (사)개벽장학회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예체능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후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총 39명의 지역 학생에 3천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박유진 연구원, 우수 논문상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박유진 연구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개원 4주년 행사에서 체육과학 연구상 부문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고교 카누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 훈련 및 상담’이란 논문 제목으로 이 상을 받게 됐다.

이 논문은 대회를 앞둔 학생 선수들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심리 기술 훈련 등이 게재됐으며, 스포츠과학 지원 효과를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연구원은 실업팀 카누선수 경력을 지닌 연구원으로 체육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박유진 연구원은 “우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극복한 다양한 심리적 경험들이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프 스킬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2021 대학운동부평가지원사업' 9위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전국 9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있으며,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동부 종합평가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발표한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총 5개 평가 영역 21개 평가지표, 6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평가 미실시 항목 4개를 제외한 총 60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대학별 지원범위를 정했다. 사업 신청 대학의 운동부 운영 현황에 대한 정량, 정성, 실사, 종합평가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고에 장학금 기부행렬... 총 1500여만원 기탁

고창고등학교(교장 김영주)에 장학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고는 올해 들어 10 여명이 방문, 5월까지 1,500만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김중학씨(고창군 신림면 거주, 참바다 무상장학회 운영)가 소년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명을 참바다영농조합에 초청해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수여했다.

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재운씨(고창읍 거주, 매산장학회 운영)는 3월 학교를 방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안재운씨는 스스로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주씨(금곡장학회 운영)는 민족문화 진흥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매년 2회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데, 올해도 1차분으로 6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해리면에서 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근씨는 본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

으며, 고창읍에서 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황씨는 2019년도에 고창고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4월에는 정승진씨 등 총 9명의 졸업생(고창고 61회)이 결성한 맥우회 장학회에서 100만원을,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유종영씨(고창고 62회 졸업)가 매달 4만원씩 장학금을 보내와 44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병대씨(고창고 24회 졸업생)는 ‘경산장학회’를 만들어 1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5월에는 고창고 제2대 교장 ‘고 인태승’ 선생의 손자 양홍렬씨가 학교를 방문, 합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의 후학들에게 써달라며 3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창중 ? 고창고 장학회인 ‘고창학원 장학회’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성적과 1학년 1학기 성적을 합산해 3년 장학생과 성적우수자 장학생에게 총 5천만원, 고창병원에서 운영하는 ‘석천 장학회’에서도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총 5,00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부안농가주부모임, 미용 재능봉사 '눈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부안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단장 김미자)과 함께 부안군 부안을 동종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용 재능봉사를 펼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에서 미용 자격증이 있는 봉사단원이 현장에서 커트를 담당하고, 다른 회원들은 머리손질, 주거환경 정비 등을 실시했다.

김미자 단장은 “농촌마을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어려워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재능을 봉사활동을 통해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광성, 전주서신동에 KF94 마스크 1만장 기증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동장 김선중)는 지난 18일 국산 필터·원단로 케어웰 KF94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성(이사 서성호)이 KF94 마스크 1만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성호(췌)광성 이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작은 마스크 한 장이지만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간)
(주)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6945-4113	중앙지사 010-9388-65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6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4227	임실지사 010-9942-2725
산천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안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364
호지지사 010-6945-9986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85	장흥지사 636-3767
	군산지사 010-6739-0336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322-6157
	익산지사 663-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위드 앤 씨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